■■■ 감동적인 합격기
[2019년도 5급 공채 재경직 합격]

꼭 누군가는 반드시 합격한다

박 찬 혁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9년도 5급 공채 재경직 합격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9년 5급 공채 재경직에 합격한 박찬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남들에 비해 특별한 공부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 한 명의 수험생에게라도 일말의 도움이 된다면 이 글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수기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 수기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으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Ⅱ. 수험생활 개관

1. 2016년 ~ 2017년 6월 : 초시

16년도에 처음 고시에 진입했습니다. 진입하면서 1차를 시험삼아 보았고, 운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지만 비전공자였기에 어짜피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차근차근 예비순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 2차는 참석에 의의를 두었는데 경제학 외의 모든 과목이 과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시기에는 1년반을 통째로 휴학하고 고시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 3순환까지 충실히 강의를 따라가며 열심히 준비했고, 고시생활 중 가장 열심히 했던 시기입니다. 이후 공부강도는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7년도에 1차에 합격하고 3순환도 열심히 공부하여 2차를 치렀습니다. 0.5점 차이로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되어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못 본 과목이 없었음에도 국제경제학이라는 선택과목이 너무 불리하게 작용한지라 더욱 억울했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저보다 더 아깝게 떨어지신 분도 많았기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2. ~ 2018년 6월 : 재시

저는 그렇게 성실한 스타일이 못 되어, 2017년 2차가 끝나고 발표가 날 때까지 공부는 손도 안대고 놀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아서 사실상 거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종강 후 본격적으로 2차공부를 시작했고, 1차 공부는 시험 직전에 몰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재시에도 1차에 합격하여 2차 공부를 하게 되었고, 3순환을 모두 수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는데, 시험기간 중 개인적인 일이 생겨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고, 최대의 집중력으로 임하는 시험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험에서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 결과 역시 현장에서 생각하고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경제관련 과목들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며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억울했고, 3순환 기간에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음에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한번 더 도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3. ~ 2019년 6월 : 삼시

역시나 2학기에는 복학하여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시기에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역시 종강 이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1차 준비는 직전에 몰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학교에서 준비를 했는데,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어서 환경을 바꾸어보고자 2월 경 신림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1차에 합격하여 2차 준비를 시작했고, 이 때에는 행정법 3순환은 듣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3순환을 수강했습니다. 2차가 끝나고는 정말 이제는 고시공부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도 바로 정리하고, 책도 다 정리해버리고 방학에 단기 교환학생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운 좋게 2차에 합격하고, 면접을 준비하여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느낀 점은 운7기3이라는 고시판 격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운이 따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운이 따라줄 때가 또 있다는 점에서 만약 힘드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언젠가 빛을 볼 날도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Ⅲ. 1차 시험

1. 개 관

PSAT의 경우 100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100개의 공부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각자의 접근법과 풀이법이 매우 다르고, 누군가의 풀이법이 타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제 공부방법을 맹신하지는 마시고,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운이 좋게도 PSAT이

잘 나왔던 케이스라 점수를 크게 향상시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취할 것만 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합격에 있어 매우매우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차를 합격하지 않고는 2차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가 볼 수조차 없으며, 1차를 합격한 사람의 실력향상곡선은 불합격한 사람에 비해 매우 가파릅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교 공부를 하실 때 그 공부 강도와 양이 시험 1달 전과 1일 전 각각 어떠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른 공부를 제쳐두고서라도 1차를 가장 우선적으로 합격수준까지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출문제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족보입니다.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시고 사설 문제들을 소위 '양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는 기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향후의 그것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가장 좋은 수단이며,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낸 고급의 문제입니다. 거의 외우듯 푸시고 분석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헌 법

헌법의 경우 저는 17년도(헌법도입)에 김유향 강사님의 수업을 들으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연도에 과할 정도로 좋은 점수를 받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여, 18/19년도에는 시험 전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OX문제와 조문 위주로 공부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학원강의를 적당한 정도로 이용하시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합격선을 넘기는'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언어논리

언어논리의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겐 특별한 공부방법이 없습니다. 김우진 선생님의 논리특강 강의를 통해 논리영역 풀이방법을 익혔고, 나머지 독해 부분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4.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모든 선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풀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40개 문항 5개 선지 모두를 왜 답이 되고 왜 답이 아닌지 분석하고, 그에 더하여 다음에 이 문제를 본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어떻게 효율적이고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제끼는 문제를 선별할지 고민했습니다.

5. 상황판단

상황판단의 경우 언어논리와 자료해석의 중간 쯤 되는 방법으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법조문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퀴즈는 공부한다고 느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자 했습니다.

Ⅳ. 2차 시험

1. 개 관

2차 시험 준비에 있어 저는 학원 강의에 상당히 의존한 편이었습니다. 전공자도 아니어

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고, 학원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거니와, 혼자 공부하게 되면 해이해지기 쉬운데 매일매일 수업을 들으면서 그날그날 복습을 하려고 노력하면 진도와 공부량을 잘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학교에서 공부했던지라 인강을 들었고, 마지막에 신림에서 실강을 들어 보았는데, 인강이 개인시간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 같고(배속) 실강이 긴장감이라던지 집중도 측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경제학

경제학은 황종휴 선생님 강의를 예비 ~ 3순환까지 들었습니다. 초심자는 김진욱 선생님 강의가 보다 쉬울 수 있다는 조언을 들어서 처음에 수강하였으나,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황종휴 선생님 강의로 바꾸었고 다행히 저와 잘 맞아서 경제학 과목은 끝까지 황종휴 선생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황종휴 선생님 강의의 최대 장점은 직관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이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 점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다만 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황종휴 선생님 강의의 단점으로 정리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그 부분을 스스로 잘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는 강의를 통한 이해 → 문제풀이를 통한 숙달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해만큼이나 문제풀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꾸 교과서를 탐독하는 것 보다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되지 않던 것이 문제를 풀면서 바로 이해되었던 적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 후에는 교과서를 조금 멀리하고, 황종휴 선생님 연습책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연습책이 해설도 자세하게 되어 있고 학습하기에 좋아 저는 3회독 이상은 했던 것 같고, 마지막 정리도 연습책에서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뽑아서 풀어보는 식으로 했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문제들이 좀 있으나, 그 부분은 스스로 쳐 내시면 됩니다.

경제학 시험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함의는 사실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안 쓰셔도 됩니다. 답을 다 맞추고 필요한 것을 적고 나서도 여유가 있으면 함의를 쓰시면 됩니다. 정확히 답을 맞추시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식과 개념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시고, 답안이 논리적으로 구성되도록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행정법

행정법은 김기홍 선생님 강의를 처음에 3순환까지 수강하였고, 재시 이후에 류준세 선생님 강의로 바꾸었습니다. 김기홍 선생님 강의의 장점은 예비 ~ 3순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강의에 사용되는 wording이나 text가 일관적이어서 암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판례를 약간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 경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류준세 선생님 강의의 장점은 풍부한 내용이지만, 초시생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오히려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법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법학은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뼈대가 잘 잡혀 있으면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목차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각 쟁점별로 조문 → 학설 → 판례로 이어지는 논리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만큼이나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시험은 최근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판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트렌드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판례를 기반으로 출제되며, 정확한 판례를 적시하시고 그에 기반하여 문제풀이를 해 나가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점을 잘 잡으시는 것입니다. 논점을 일탈하신다면 아무리 논리적인 내용을 쓰셔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듭니다. 실제로 저도 시험에서 매번 판례를 제대로 몰라 적지 못했는데, 논점을 모두 터치하고 그에 기반해 나름대로 논리적인 답안전개를 했는데, 매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행정학

행정학은 박경효 선생님 강의를 예비 ~ 3순환까지 수강했습니다. 저는 행정학의 경우 다른 강사분의 강의도 듣지 않았고, 자료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다른 강사분들의 장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효 선생님 강의의 최대 장점은 내용이 너무 장황하거나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좋은 강의력으로 잘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정학 공부는 재경직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저도 행정학이 너무 하기 싫고, 이해도 안 되어 짜증이 났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고, 실제 사례들도 접하기 힘들어 정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험에서 꽤 좋은 성적(60점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다음의 세 가지가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개념과 키워드를 일단 암기했습니다. 저도 암기를 굉장히 싫어해서 이러기 싫었는데, 정확한 개념과 키워드 위주의 암기는 일단 답안 서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점에서 행정법처럼 외울 것은 좀 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목차와 키워드 위주의 서술을 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채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보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목차를 최대한 잘 잡고, 키워드가 눈에 띄도록 답안 구성을 했습니다. 셋째, 문제에서 묻는 내용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박경효 선생님께서 매우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저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잘 모르겠으면 문제를 2번이고 3번이고 읽어보시고 그 안에 파악된 의도를 읽으려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차 구성도 문제에 맞게 하고자 했고,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5. 재정학

재정학은 첫 1년은 김진욱 선생님 강의로 3순환까지 들었고, 그 다음에는 황종휴 선생님 강의로 1~3순환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3순환만 들었습니다. 강사님별 장단점은 경

제학과 같은 것 같습니다. 황종휴 선생님께서는 역시나 직관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고, 김진욱 선생님 교재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재정학 공부의 중요성은 최근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정학 고득점 사례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고, 작년이나 올해의 경우 경제학 과목과 점수분포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즉, 경제학 만큼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에 비해 양은 적으면서도 점수는 그만큼 잘 나오기 때문에 비중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학 공부의 큰 맥락은 경제학 과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소위 썰 푸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차 위주로 중요한 사항들을 보다 많이 암기했고 실증연구 등도 유명한 것들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6. 국제경제학

초시에는 국제경제학을 선택했기에, 국제경제학 역시 예비 ~ 3순환을 모두 황종휴 선생님 강의로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황종휴 선생님 강의 중 국제경제학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과목이 아닌가 싶고, 선생님께서도 이 과목을 좋아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제경제학은 우선 전체적인 틀과 각 모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어떤 모형을 통해 풀어야 하는지 빨리 파악하고자 했고, 큰 틀 속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역시나 여타 경제학 과목과 마찬가지로 답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17년도에 국제경제학에서 낮은 성적을 받고 통계학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국제경제학이 전혀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경향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제학은 경제학과의 연계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불의타가 적다는 점이 장점이고, 통계학은 높은 점수가 장점이지만 불의타가 나오면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6/19년의 경우 통계학 점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7. 통계학

통계학은 처음에 혼자 공부하다가, 중간에 남선일 강사의 강의가 생겨 1순환/3순환을 수강했습니다. 고시판에 처음으로 등장한 제대로 된 통계학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남선일 강사 자료만으로도 이제껏 기출은 모두 대비가 되었으나, 19년도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불의타를 마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경향은 알 수 없지만, 인사혁신처에서도 통계학 유리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으니, 선택과목 선택은 유불리가 아닌 개인의 취향에따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는 큐스터디 수리통계학/고고씽 통계학으로 공부하다가, 19년도에는 남선일 강사 자료만으로 공부했습니다. 통계는 정말이지 서술을 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과목을 공부하셨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 보시고, 답을 맞추는 데에 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 기 타

1. 운7기3

고시판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을 그냥 흘려 넘겼는데, 수험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옛말 틀린 것 없다는 또 다른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해서 안 될 시험은 아니지만, 운이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기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합격하시고, 정말 실력자이신 분들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되,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운명론을 신봉하자는 말이 아니라, 1) 운이 7할이니 혹시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2) 운이 따라줄 때를 위하여 항상 나머지 3할을 갖춰놓자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운이 좋은 순서대로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2. 스터디

여러 공부방법 중 논란이 되는 것이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스터디에서 서로 무언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스터디는 '규율'을 갖추기 위한 것만 하였습니다. 가령 행정법 암기스터디, 행정학 암기스터디, 경제학 문제 몇 개씩 풀어오고 확인하는 스터디 등입니다. 고시공부가 외로울 수 있어서 홀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적절한 스터디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역시 스터디의 최대 적은 시간낭비의 가능성이니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하시면 될 듯합니다.

3. 체력 및 멘탈관리

고시공부는 장기전입니다. 체력관리는 필수입니다. 그 방법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의 사정에 맞게 하시되, 필요에 의해 시작하시면 늦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확 체감될 때는 대부분 3순환 시기이고, 이때는 특별히 체력을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멘탈관리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시공부에서 멘탈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성적문제/인간관계/외로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주로 운동을 하거나 영상/영화 등을 보았고, 생각을 고쳐먹으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Ⅵ. 나가며

생각보다 길게 많은 내용을 적었지만, 사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운이 좋아 먼저 합격한 사람이 공부한 내용을 한번 풀어 본 것에 불과합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태도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고시, 누구나 자기 인생을 걸고 준비하는 시험이기에 정말 붙기 힘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합격합니다. 불가능한 시험은 아니니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 다잡고 힘내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온 마음 다해 기원하겠습니다.